

## 하나님의 주권찾기- 다니엘 5강

### 1. 인트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찾기 다니엘서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하여 2주 남았는데요. 끝까지 힘내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만인 인력의 법칙을 만든 뉴턴을 아시나요? 뉴턴하면 사과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뉴턴은 과학자이기도 했지만 신학자였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일컬어 '그리스도 신앙의 주춧돌이 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구속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9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2.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구원의 약속

1 메대 족속 아하수제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위의 말씀에서 '책'은 예레미야서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늘 두 가지를 인생의 기둥으로 붙들고 있었는데요. 바로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고서는 다니엘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늘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도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남긴 예언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대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12-13

12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칠십 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난다는 사실과 함께 바벨론의 멸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쓴 채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때를 B.C 605년경으로 추정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로부터 정확히 70년 후 이스라엘의 해방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상황을 보니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지 68년의 시간이 났습니다.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 불과 1~2년을 남지 않은 것이죠.

### 3.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

그런데 그는 왜 비장한 모습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34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동안 땅을 갈고 7년이 되는 해에는 경작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도 풀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그들은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땅을 쉬게 하지도, 노예를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풀어 줬던 종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역을 시키는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년을 철저히 어긴 것이지요.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땅은 경작할 사람이 없어 자동적으로 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눈물의 역사가 다른 아닌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곧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쓴 채로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 옆면-3 시작

다니엘이 입은 베옷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은 옷으로 땀 흘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입었습니다. 당시 예배를 드릴 때 땀 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구원 관한 행동이었는데,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이 베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용서 밖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또한 재는 가장 깊은 절망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됐다"라는 상황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또한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마치 다 타고 남은 재처럼 말이죠.

다니엘은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재처럼 여기며 금식을 시작합니다.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힘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식은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음식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행동은 곧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밖에는 답이 없습니다"라는 처절한 회개와 간구인 것이죠.

### 옆면-3 끝

지금 겪는 고난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도록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강조합니다.

다니엘 9:5

5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조상들로부터 이어지는 이 최악의 사슬을 끊지 못한다면 해방되더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

아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 4. 일흔 이레(490년)의 비밀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을 전합니다.

다니엘 9:23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언제죠?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인가요?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벌써 그의 기도예 응답해 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다니엘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일흔 이레'는 70년(일흔)이 일곱 번(이레)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총 490년의 시간을 뜻하죠. 그리고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은 각각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해 정하신 490년이라는 기간이 자니면 이 땅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 부류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이 세가지 직책을 모두 소요한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또 헬라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25-26

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일흔 이레'를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 그리고 한 이레입니다. 일곱 이레는 49년, 예순두 이레는 434년입니다. 490년에서 이 둘을 빼면 이레, 곧 7년이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490년은 49년, 434년, 7년으로 세 등분된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490년을 이렇게 세 등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기간들이 갖는 시대적 의미와 영적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다니엘 9:25

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말씀에 보면 왕이 일어난다 표현합니다. 여기서 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483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 옆면-4 시작

그런데 예언의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느헤미야서 2장에 그 시점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느헤미야 2:1-2

1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서 '니산월'은 바벨론식 표기로 히브리어는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을 말하는데요, 이때 느헤미야 역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니엘처럼 포로 생활 중에 관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섬기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들키고 맙니다. 왕이 그에게 근심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왕을 보필하는 관리로서 왕에게 근심하는 얼굴을 보인 그의 행동은 당시 법으로 처형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하기에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며 입을 엽니다.

자신의 고향이 폐허가 됐는데 어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냐 말합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신뢰하는 신하,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성을 복원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483년을 헤아리는 시작 지점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일부 관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이 49년 만에 완성됩니다. 490년의 처음 부분인 일곱 이레가 끝난 것이죠. 그리고 그 뒤, 선지자 에스라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을 벌이며 몰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앞장 섭니다.

#### 옆면-4 끝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갑니다.

다니엘 9:25절 첫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했던 "너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49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고, 그 후 434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서는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다니엘 9:26

예수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그림을 다니엘서에 비밀스럽게 숨겨 놓으신 것이죠.

일곱 이레와 예수두 이레에 대한 의문이 벗겨졌으니 이제 한 이레, 곧 7년에 대한 해석만 남았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나머지 한 이레는 7년이라는 시간이 아닌 종말이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를 우리는 종말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한 이레는 이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곱 이레와 예수두이레 곧 483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 일흔 이레에 이르는 어느 날 종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 5. 기도의 사명을 맡은 다니엘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는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10장은 11,12장에 대한 서론부분입니다. 다니엘 10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니엘 10:1

바사 왕 고레스 제삼 년에

고레스 왕이 집권한 지 3년이 되는 해에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두 차례 귀환 정책을 통해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여든이 훌쩍 넘은 시기였습니다. 그는 '거의 한평생을 타국에서 살았는데 폐허가 된 본국으로 돌아간들 뭐하겠느냐. 그냥 이대로 살다 죽자'라는 마음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를 내려놓기 싫어서 머물러 있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다니엘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방해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됩니다. 외부적인 방해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상 들뜬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꾸릴 돈도 필요해집니다. 막연히 성전 재건에만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서서히 지치기 시작합니다. '좀 쉬었다 하자', '일단 가정부터 꾸리고 성전을 재건해도 늦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학개입니다. '학개'라는 이름은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패배감과 실망감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불을 지릅니다.

#### 학개 1:4-5

4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5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선지자 학개는 무너진 성전을 놔두고 어찌 자신의 집을 돌보려 하느냐며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합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고 격려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학개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죠.

선지자 학개 이후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에스라입니다. 그는 말씀을 차근차근 깊이 있고 조리 있게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지, 왜 이대로 주저 앉으면 안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 이어 실제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행정가 느헤미야를 보내셨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보면 수많은 조직이 눈에 띄는데 느헤미야의 행정가다운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각각 분명하게 역할을 나누고, 그 역할에 맞게 일을 배분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한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가 절망감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성전 재건을 향한 불을 붙였다면, 선지자 에스라는 조리 있게 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지 그 뿌리를 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진두지휘하며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삶을 재건하는데 박차를 가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이방 땅에 외로이 남아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장 사람들의 눈에는 선지자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역할이 돋보일 수 있습니다. 주목받는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반면 다니엘은 가슴 한편에 밀려오는 그리움을 억누른채 이방 땅에 남아 조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은 3주 동안이나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아닌 3주동안 금식을 했을까요?

고레스 왕 때 주어진 1차 성전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세금을 왕에게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모함하죠. 이에 왕은 법적으로 성전 재건을 중단시킵니다. 이제 공사가 언제 재기될지 모

르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마음이 답답하여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 6. 히데겔에서 보여진 환상

그 와중에 다니엘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10:4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 강은 페르시아만에서 약 100마일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만나는 지점으로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이 환상은 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말해줍니다.

다니엘 10:5-6

5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6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순결과 거룩성을 뜻하는 흰색상의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고 합니다. 우바스는 지역이름인데요,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바스에서 나오는 금을 뜻하죠. 허리에 띠는 왕 또는 재판관의 신분을 가졌음을 상징합니다. 얼굴은 인간의 육안으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았습니다. 횃불은 엄정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몸은 황옥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습니다. 황옥은 황금색을 띄는 보석을 말하고 빛난 놋은 강한 능력과 위엄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또한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힘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이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은 아름다운 빛이 뜻하는 윤택한 피부 빛이 썩은 것 같이 피부가 검은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다 빠지게 되죠. 그의 음성을 듣고 다니엘은 기절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잠이 듭니다.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여 힘이 없어 쓰러진 다니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하죠.

다니엘 10: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이미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 옆면-6 시작

그런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해주려 오기까지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 다니엘 10:13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가는데 사탄의 군대가 막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바사,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감화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군대가 먼저 와서 페르시아의 군주의 마음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인간의 마음을 두고 선악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군대가 와서 전쟁함으로 21일동안 올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줍니다. 미가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통하여 미가엘의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강력한 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에서는 가브리엘을 도와 하늘의 악한 영을 대적할 힘을 지닌 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으로 미가엘은 소개됩니다.

#### 옆면-6 끝

#### 다니엘 10:14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겪을 내용을 말씀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매데 페르시아 다음 헬라제국과 분열된 4개의 제국시대, 그리고 종말의 때를 모두 말합니다. 오랜 후의 일임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천사에게 압도되어 얼굴을 땅에 대고 듣게 됩니다. 환상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지게 됩니다.

#### 다니엘 10:18-19

18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은 '가브리엘'천사를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만져 육체적으로 힘이 나게 할 뿐만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 7. 영적인 전쟁

#### 다니엘 10:20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아느냐?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워야하고 그 다음에 헬라의 군주가 올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페르시아 군주는 실제로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영향을 미쳐 하나님



의 뜻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 즉 사탄을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왜 페르시아의 군주, 즉 사탄과 왜 싸웠을까요?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는 악한 영을 저지시키기 위함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페르시아의 통치가 유다백성들에게 우호적인 것만 아니었습니다.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적대했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전재건 공사를 고소하여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이 모든 일들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꺾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렇기에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악한 영들과 싸운 것이죠. 이후에 헬라의 군주, 악한 영이 와서 다시 싸우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 다니엘 10:21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자신이 떠나기 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릴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의 글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줄 자가 미가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서'라는 말은 강하게 한다는 뜻으로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울 때 가브리엘을 강하게 하여 이기도록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역사 가운데 늘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더럽히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고레스 왕과 페르시아 군주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